
식품 포장부터 스마트폰 앱까지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제공

2015. 8.

소비자 중심의 영양정보 서비스 개선

과제 분류	집중육성과제	주관 기관 (협업/관련 기관)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과제 담당자	권오상 과장 (이혜영 연구관)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 043-719-2259 H.P : 010-8643-1594

가. 현황 및 문제점 (Problem)

- 영양표시제도가 도입('95~)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활용율은 여전히 저조(68.3%, '14)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 영양표시에 사용된 용어(1회 제공량, 1일 영양소기준치 등)와 그 내용을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배려와 고민 부족
 - * 안읽는이유 : 교육부족 34% > 전문용어 사용 30% > 작은 글자 20% > 많은 정보 16%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소비자 이해의 어려움>

- (1회 제공량)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1회제공기준량(식약처 고시)을 기준으로 2/3~2배내에서 업체별로 다양 → 총내용량 또는 섭취권장량으로 오인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기준치) 1일 섭취 필요량에 대한 식품내 영양소 함량의 비율 → 1일 섭취해야 할 식품 필요량 등으로 오인
- ⇒ 소비자는 식품표시에서 1회 제공량당 함량, 총제공량, 1일 영양소기준치를 보고 자신이 섭취한 영양소 섭취량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

- 외식의 영양표시가 점차 확대('10~)되고는 있으나, 너무 많은 정보와 업체별로 제각기인 제공 방식으로 소비자는 혼란스러움
 - * 안읽는이유 : 글자가 작고 찾기 어려움 54% > 관심부족 29% > 이해하기 어려움 14%
- 영양표시 및 영양정보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행사 등을 통해 지속 알려왔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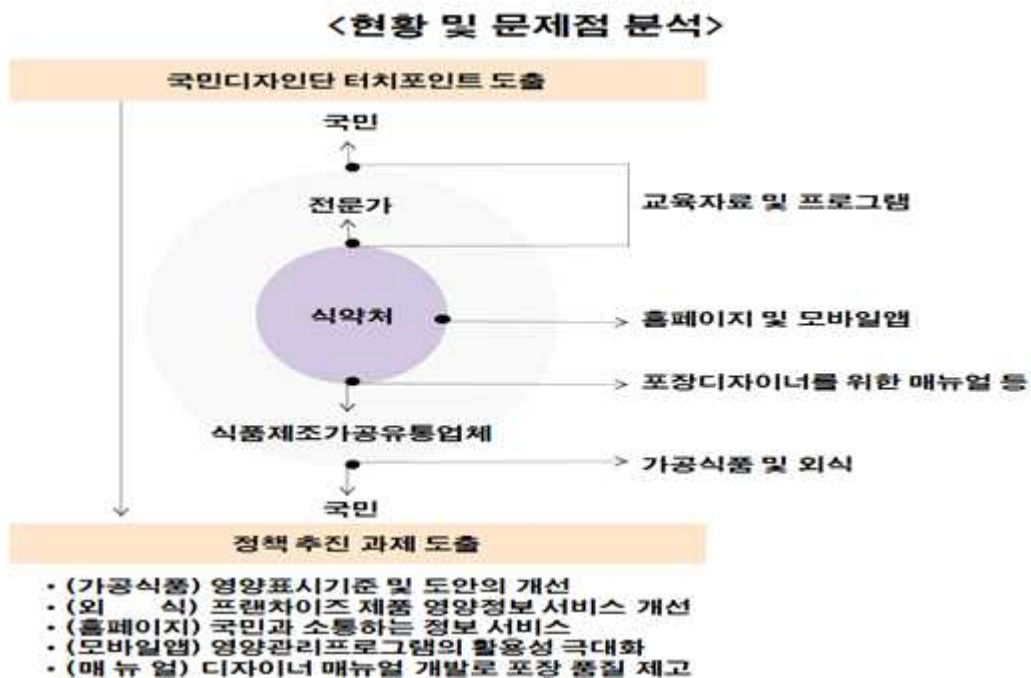
- 국회, 언론 등에서 영양표시 개선 요구 및 확대 필요성 강조

- * (국회) : 영양표시 활용을 제고 필요(서면질의, 류지영 의원, '14.2)
자율영양표시 현황 조사 결과(자료요구, 김현숙 의원 '14.9)
- * (언론) : 헛갈리는 영양정보, 누구보라는 영양표시인가(SBS, '15.7)
자율영양표시제 시행 1년 '유명무실'(현대경제, '14.7)
1회 제공량 애매하네..과자열량기준 무색(연합 등, '15.1)

☞ 소비자 입장, 소비자 눈높이에서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품질 제고 필요

나. 정책 추진 내용 (Solution)

- ◆ (정책 목표) 알기쉬운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 (주요 고객) 일반국민(소비자), 산업체, 교육자, 보건업무 관련자, 포장디자이너 등
- ◆ (추진기간) '15.8 ~ '15.12.31
- ◆ (소요예산) 총 230 백만원
- ◆ (추진체계)



□ (가공식품) 영양표시기준 및 도안의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1회 제공량 대신 1포장당 표시 등 표시방법 개선(규정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표시 • '1회 제공기준량', '1회 제공량 범위' 등 전문 용어 사용 • '총내용량', '열량' 등 이중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포장'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표시 •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목적 단위(개, 조각 등) 등 익숙한 용어 사용 • 용어 중복 없도록 간략하게 표시
<p style="text-align: center;">* 내용량:30g(50kcal) ... 영양성분 1회제공량 30g... 열량 50kcal 탄수화물 당류 ... <주표시면> <기타표시면></p>	

- 쉬운 용어사용, 영양표시 도안 간소화 등 표준 디자인안 개발 (가칭, '튼튼박스'), 향후 교육·홍보 등에 일원화된 시각 모티브 제공 (국민 디자인단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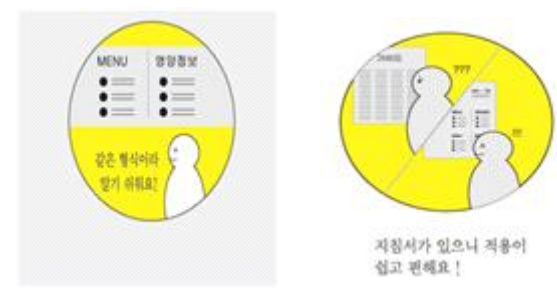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 영양정보 표시로 간단하게! · 건강의 높은 관심을 활용해서 습관으로! (예, 영양정보표시는 '튼튼박스' 로 통일, 시청각 언어 노출의 빈도를 높이고 찾도록 유도)

□ (외식) 프랜차이즈제품 영양정보 서비스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안내판 등 영양정보 제공방식을 통일, 표준디자인안의 현장 적용 및 피드백 평가, 적용 가이드 및 지침서 개발·보급

* (의무) 피자·햄버거점, 아이스크림점, 제과·제빵점 (100개 이상 점포)

* (자율) 대형 영화관(CGV, 롯데, 메가박스),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 등

변경 전	변경 후(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판 또는 POP 양식이 제각기 •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여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메뉴 정보를 제공하여 단순 • 메뉴판 또는 POP 양식을 통일
	
<p>“매장마다 (형식이) 달라서 어려워요.”</p> <p>“OO에가면 보기 쉽고, OO은 전혀 알수없고...”</p>	

※ 대형 영화관 스낵바의 안내판(POP) 현황



□ (홈페이지) 국민과 소통하는 영양표시 사이트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수요자를 구분하고, 고객 중심으로 콘텐츠, 디자인을 대폭 개편

- 소비자, 영업자로 구분하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영양정보들을 수요자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

(소비자) 영양표시 활용법 등 메뉴 신설 및 '영양성분표'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 전달로 재미요소 가미

(영업자) 법령자료, 실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강화 및 FAQ 메뉴 등 신설

변경 전

- 단일 메뉴
- 평면적 디자인



변경 후


- 수요자(소비자, 영업자) 구분, 세부메뉴
- 활용성, 편의성 높은 F형 블락메뉴, 디자인



- 정보 공유·활용 극대화 위한 SNS 연계기능 강화, 정보 제공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후 피드백 강화(국민 디자인단 보완)

변경 전

-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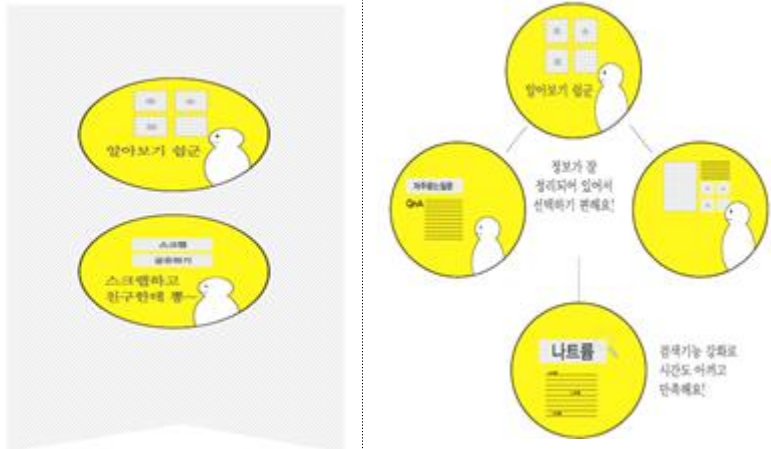
정보가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변경 후


- SNS 연계 기능 강화, 행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후 피드백 강화

잘 정리된
아이콘과 정보들로
손쉬운 정보찾기


- 이미지의 적절한 사용으로 직관적 검색 가능하도록
-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로 정보를 좀더 빠르게
- SNS 바로 공유 가능하게
- 팝업창 활용으로 한시적 유용 정보는 바로바로!



어! 재밌는
포스팅이네. 썸네!!




오! 저럼
재시피네!




SNS
공유하기


스크랩하고
친구한테 썸~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로 나도 제염식




편! 건강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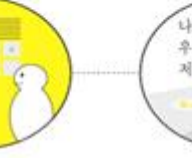
SNS

영양정보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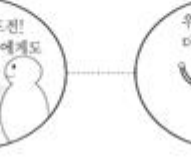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양정보 활용하는지
보여줘요!



나도 한번 도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염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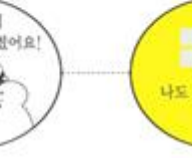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해졌어요!



SNS
공유하기

나도 공유!



□ (이벤트/행사) SNS 등을 활용한 정보의 활용성 제고(국민 디자인단 보완)

- 영양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체험중심의 행사 실시
 - 배너, 홍보관, 체험현장 등에서 당류·나트륨 줄이기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표시 활용을 알림

<p>X배너</p>	<p>홍보관</p>	<p>체험 현장</p>

○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국민 디자인단 보완)

- 트위터, 블로그, 예능 PPL등을 활용, 방문객에게 혜택부여(서포터즈) 등을 통한 홍보

즐기다보니 어느새 영양정보 달인!
좋은 정보 공유하고, 함께 건강하세요

· 기법전, 공무원,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로 타겟에 따른 정확한 목표설정
· 다른 영양정보에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할 체험의 질과 실생활에 유용한 체험가득 정보교류 행사로!
· 행사 후 피드백으로 행사의 질 향상

실제 체험현장에서 진행했던 요리법이나 실천 방법 등을 온라인에서 제공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유)

· 체험 후기, 포토, 리스칭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으로 확산 유도

□ (모바일 앱) IT 기반 평생영양관리 프로그램(칼로리코디) 운영
(국민 디자인단 보완)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색상 등) 등으로 접근성 향상(15 상반기)

- 어두운 색상(검정·파랑)
-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들
- 각 메뉴마다 메인으로 이동 후 재접근

- 은은하고 깔끔한 색상 및 디자인 (청록, 식약처 상징)
- SNS 연계로 스크랩과 공유 기능 추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모든 페이지에서 원클릭 접근(슬라이딩 메뉴맵 사용)

변경 전



변경 후



○ 버거킹 등 26개 프랜차이즈(12,945매장) 조리·판매식품 메뉴의 영양정보 웹 DB화* 및 소비자 활용성** 제고

* 정보제공 품목수(누적) : ('14) 4,000개 → ('15) 8,000 → ('17) 약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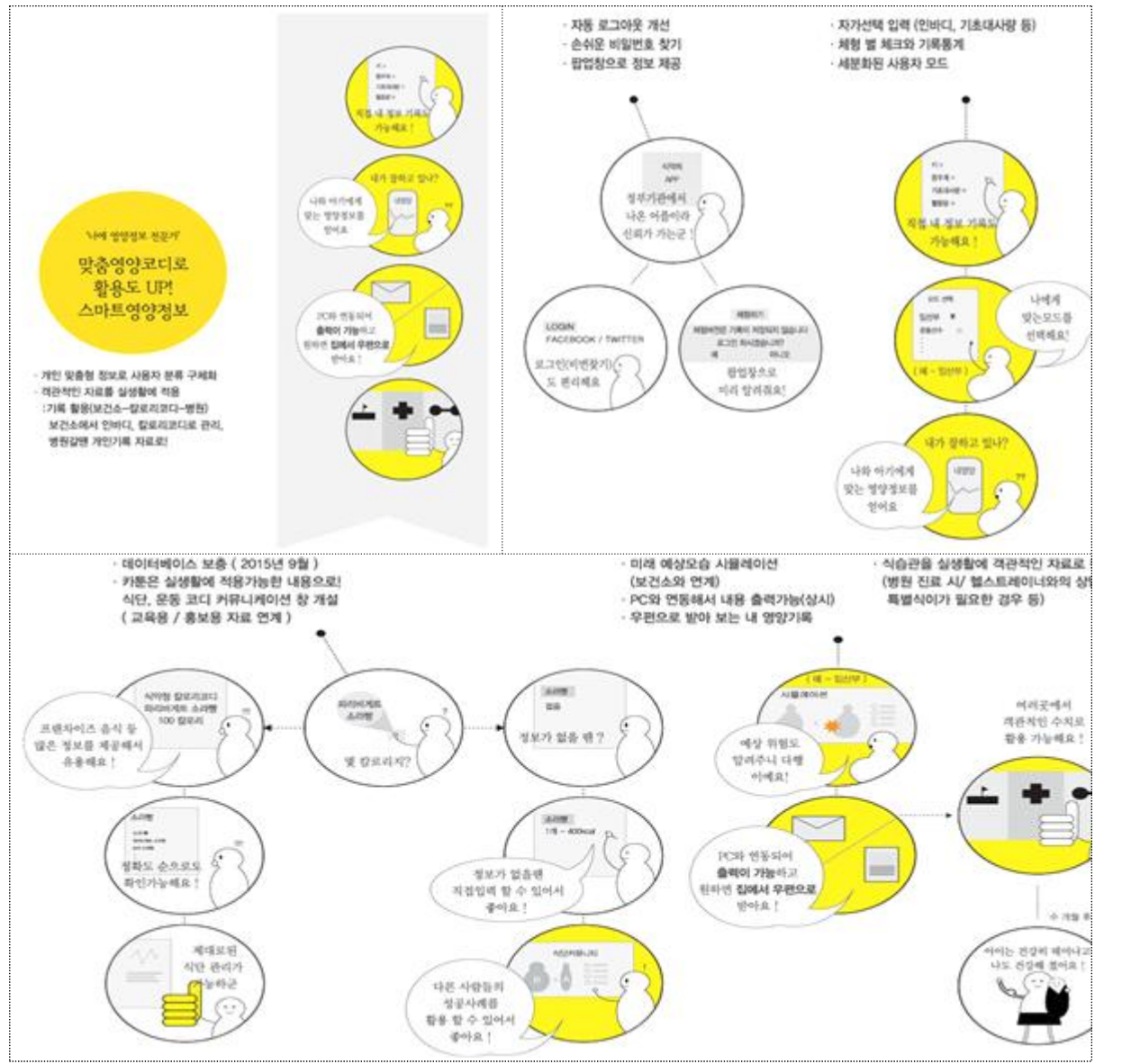
** 칼로리코디 앱과 PC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입력, 저장, 인쇄 등 편의성 제고

○ 개인별 니즈를 반영한 체중관리 기능 추가, 제품의 영양성분 DB 및 개인 식사기록을 병원, 학교 등 외부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 이상 체중기준 : ('전) 일률 적용 → ('후) 개인 니즈에 따라 자가입력 및 조정
- * (전) 식품의 영양섭취량만 관리 → (후) 건강기록 등과 연계한 건강 관리로 확대

<국민 디자인단 아이디어>

- 개인 니즈에 맞게 체중관리 가능하도록 자가선택 입력(인바디, 기초대사량등) 기능 추가(개인 체형별 세분화된 사용자 모드)
- 개인식사기록을 보건소, 병원 등 외부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성 제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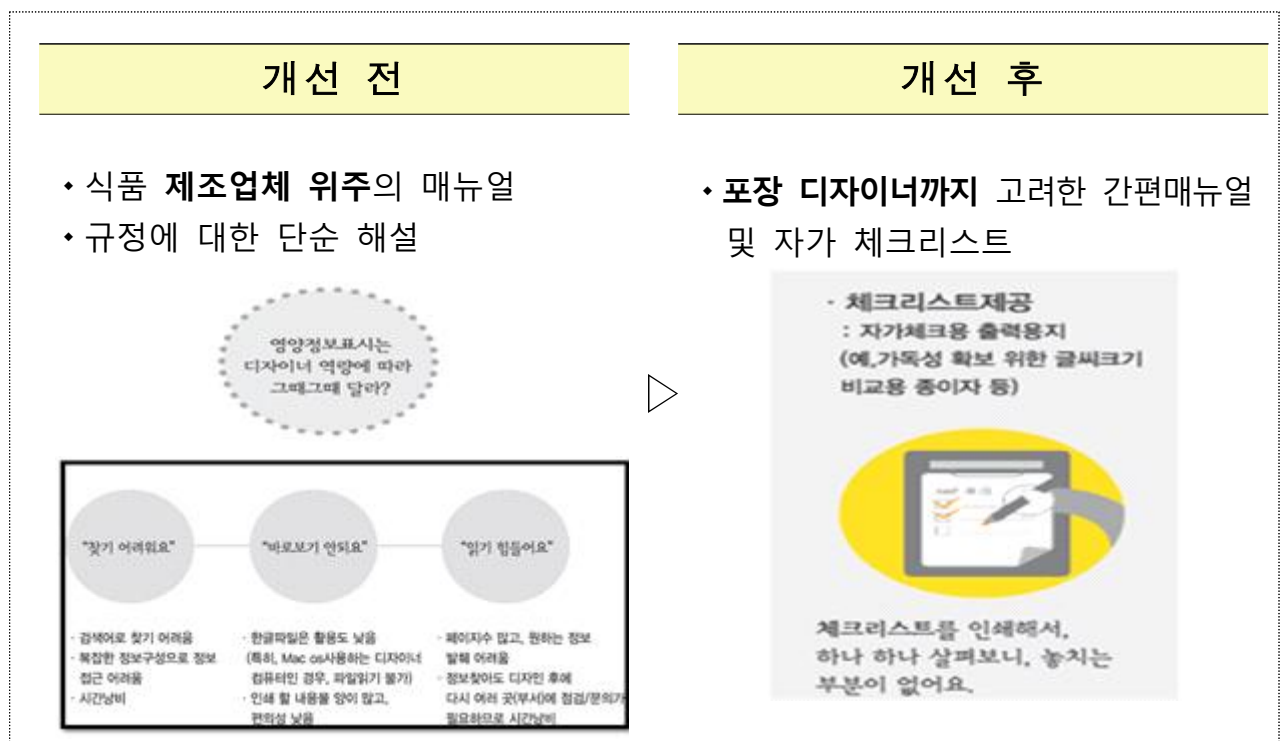


※ 「칼로리코디」 기능개선 로드맵



□ (매뉴얼) 디자이너 매뉴얼 개발로 포장품질 제고(국민 디자인단 추가)

- 영양정보를 생성하는 시점에서 포장 디자이너들이 오류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편 매뉴얼 및 자가체크용 체크리스트 개발



다. 정책 추진 일정 (Action Plan)

□ (단기)

- 「영양표시 표준 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평가사업」 추진(8~12월)
 - 가공식품 및 외식의 표준 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 포장 디자이너 등을 위한 간편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개발
- 수요자 중심의 영양표시 사이트 리뉴얼 오픈(9월)
- 영양관리프로그램(칼로리코디앱)의 활용성 제고 방안마련(12월)
- 1회 제공량 및 표시방법 개선 등 영양표시기준 개정(12월)

□ (중기)

- 영양표시 교육·홍보사업 등에 영양표시 표준디자인안 적용(16년)
-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교재 및 교육부와 협조하여 실과·가정 교재에 영양표시 표준도안 적용(16년)
- 영양관리프로그램(칼로리코디앱)의 외부서비스 연계 활용성 제고(17년)

< 연도별 주요 이행계획(금액: 백만원)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주요 이행 계획	<영양표시 교육홍보 및 영양정보 서비스 (392백만원)> -영양표시 사이트 리뉴얼(80백만원) -칼로리코디 앱-웹 연계시스템구축(45백만원)	<영양표시 교육홍보 및 영양정보 서비스 (398백만원)> -영양표시 표준 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70백만원) -식품영양성분 DB확대 및 칼로리코디앱 활용성 제고방안(90백만원) -영양표시광고(70백만원) 등 -영양표시 전문가과정 등에 활용(17백만원)	<영양표시 교육홍보 및 영양정보 서비스 (498백만원)> -영양표시 표준 디자인안 적용 확대(70백만원) -칼로리코디앱 활용성 제고방안(50,000천원) -영양표시광고(70,000천원) 등 -영양표시 전문가 과정 등에 활용(42백만원)	<영양표시 교육홍보 및 영양정보 서비스(498백만원)> - 전년도 동일 - 전년도 동일 - 전년도 동일 -영양표시 전문가 과정 등에 활용(50백만원)
소요 예산	392백만원	398 백만원	498백만원	498백만원

라. 기대 효과 및 정부3.0 가치

□ (기대효과)

- 국민 눈높이의 맞춤형 영양정보 서비스 실현으로 올바른 식품 선택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습관 함양
- 식품의 영양정보 개방·공유를 통하여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 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규제(규정)와 서비스(정보), 콘텐츠(기준)와 디자인(도안), IT(앱-웹 연결) 등의 융합으로 영양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

< 정책 추진 전과 후 비교 >

	정책 추진 전	정책 추진 후 기대효과
정책도출 방식	- 관리자 입장에서 정책과제 도출	- 국민입장에서 체험 및 의견을 토대로 터치포인트별 과제 도출로 국민 눈높이 정책 개발
정책고객	- 전국민	- 포장디자이너 등까지 고객층 확대, 세분화
가공식품 (영양표시 도안)	- 업체별로 제각기이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움	- 업체별/제품별로 통일되고 간소화된 도안으로 고객이 이해하기 쉬움
프랜차이즈 영양표시 안내판	- 영양정보가 너무 많아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 정보를 쉽게 찾아 보기 힘들 - 매장별로 제각기라 보기 어려움	- 주요 제품에 대한 간략정보로 쉽게 찾아보기 쉬움 - 매장별로 통일되고 간소화된 도안으로 고객이 이해하기 쉬움
적용 매뉴얼	- 제조·유통판매업체 위주	- 영양정보를 생산하는 시점의 포장 디자이너까지 포함
홈페이지	-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 공유 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움	- 홈페이지와 SNS 연계 기능 추가 등으로 영양표시 정보 공유·활용 강화
행사, 이벤트	- 단회적 개최 - 보여주기식 성격	- SNS, PPL 등 활용 및 피드백 평가를 병행하여 정보 활용성 증대
영양관리 프로그램 스마트폰앱	- 개인 앱에서만 영양정보 확인 가능	- 보건소, 병원 등 외부서비스와 정보를 연계·연동하여 영양정보 활용성 및 실효성 확대

□ (정부3.0 가치) 소통, 협업, 개방, 공유 가치 실현

- (소통·협업) 국가 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제를 발굴
 - 실생활의 체험과 이해관계자간 니즈를 나누고, 문제를 재설정, 탐사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
 - * 가공식품의 포장, 외식의 안내판, 웹사이트/스마트폰앱/행사 등에 국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SNS 등과 연결하여 소통 및 피드백
- (개방·공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개방·공유
 - 산업체 등의 협조로 식품영양정보를 DB화하고 개인영양관리 프로그램 '칼로리 코디'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서비스
 - * 가공식품업체, 프랜차이즈업체 자료수집(가공식품 : 2,000여품목, 프랜차이즈제품 4,000품목 등) → DB화 → 국민에게 서비스 → 병원, 보건소 등 단체에까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홍보 계획

- '15.9월, 영양표시 사이트 리뉴얼 보도자료 배포(보도자료)
 - * MBC, KBS, SBS, YTN 등 방송사 및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자신문 등
- '15.10월, 영양표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 '15.11월, 영양표시 전문가 과정을 통한 교육(직접교육)
- '15.8~11월, 영양표시 읽기 영상물 제작 및 송출(방송 광고)
- '15.12월, 포장 디자이너를 위한 적용 매뉴얼 제작·보급(인쇄물)
- '15.12월,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실시(SNS)
- '15.12월, 영양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발표(행자부와 공동보도자료)
 -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제품의 표준디자인안 제공 서비스 등

Before. 늦게 첫 아이를 임신하고 급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나에게 고민이 생겼다. 지금까지의 몹쓸 식습관을 다 버리고 건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만 도통 방법을 모르겠다. 예비맘 모임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정보들만 따라서 알차게 먹고 무조건 칼로리 적은것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따라했다가 병원에서 신경 좀 쓰라는 잔소리만 들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매일밤 컴퓨터 앞에 앉아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쓰고 정보사냥에 열을 올려본다.

After. 라디오에서 영양정보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양정보 찾는 법부터 일상생활에서 영양정보를 활용한 쉬운 건강비법까지 모조리 공개한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세상에...내가 모르는 영양정보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주말에 남편과 함께 행사장에 갔다. 맵소사 내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식품 속에도 영양정보가 꼼꼼히 숨어있었다. 일명 튼튼박스라는거...내 몸에 맞게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고급정보였는데 여태 그냥 지나쳤다. 행사장에서 다 아는척하고 넘어가던 우리 신랑도 영양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체험부스에서는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흥분한다. '카더라통신'은 그만보고 식약처 고급정보도 좀 활용하란다. 내가 먹은 영양정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병원, 헬스장 등과 연계하여 더 객관적인 지표로 쓸 수 있다니..... 집에 오자마자 커뮤니티에 공유해주고 똑똑한 예비엄마 소리좀 들었다.

튼튼박스만 찾아 내 몸에 맞게 꼼꼼히 선택하고 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만으로도 벌써 튼튼해지는 것 같다. 이번기회에 건강한 습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족 건강까지 책임지는 똑똑한 엄마가 되어야겠다.

- **(미션)** 식약처는 국민들의 튼튼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편한 '영양정보제공 서비스' 제공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 (디자인단 구성)

	성명/소속/직위	활동 소감
서비스 디자이너	임지선 교수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디자이너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김정원 교수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영양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수요자	디자이너 김태균 10시10분	"이해관계자들의 숨은 생각들을 발견하고 모두 함께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 김혜수 성신여대 자인대학	"국민들과 디자이너가 모든 국민의 영양과 식습관을 책임지기 위해 정책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나는 탐험이었습니다."
	학생 홍수정 한양대 자인대학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서비스디자인 작업물들이 정책으로 실현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학생 송지영 한양대 디자인대학	"실제 탐험 결과가 식약처의 영양정보제공 서비스로 반영된다는 기대와 책임감으로 탐험과정동안 정말 더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안예은 디자인대학	"서비스디자인과정을 함께 하면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생각들이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이청림 케이브랜드	"디자이너 입장에서 연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뻐했습니다."
주관부서 (사업담당)	이혜영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을 만들면서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숨은 마음도 확인했고, 새로운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디자인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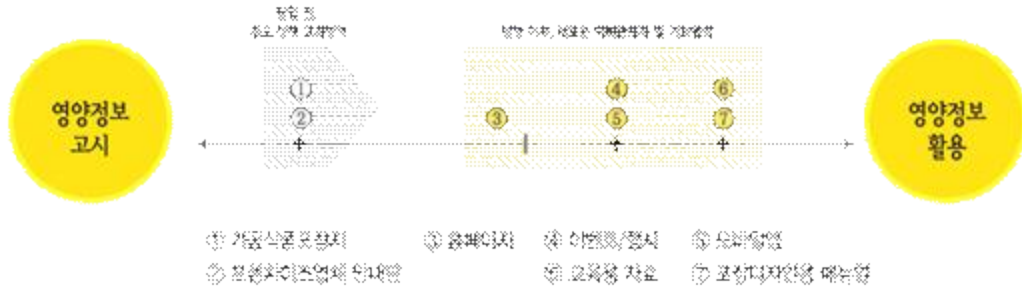
* 정부3.0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도완 사무관

■ **(아이디어 제안)** 국민디자인단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발견하였다.

이슈1. "영양정보 표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슈2. "정말 국민(소비자)만 잘 교육하면 되나?"

이슈3. "영양정보가 누구에게나 쉽고 편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위 세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탐험진행 결과 위 그림과 같이 정보의 제공(고시) 측면이 강한 터치포인트들(가공식품 포장지와 프랜차이즈업체 안내판)과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활용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터치포인트들(홈페이지, 이벤트/행사, 교육용 자료, 모바일앱, 포장디자인용 매뉴얼)을 중심으로 나누어 영양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영양정보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일원화된 시각모티브를 사용해 교육한다.**

둘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에 통일된 **튼튼 박스 표시로 소비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양정보를 생성하는 시점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한다. 따라서, **포장디자이너가 쉽고 빠르게 영양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 역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쉬운 **매뉴얼을 새로 구성한다.**

셋째, 프랜차이즈 업체 등 국민들이 **외식 공간에서** 얻는 영양정보 또한 **알아보기 쉬운 형태와 크기를 고려한다.**

넷째, 이벤트 및 행사는 국민들에게 영양정보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체험 중심으로 구성하며, 정보의 공유가 쉽도록 SNS연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사후 **피드백을 강화하여** 행사의 질적 수준 향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모바일 앱은 기존의 정보 제공보다 **정보의 활용측면을 강화**하여 사용자에게 따른 의미있는 정보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개인자료들은 학교, 병원, 스포츠센터 등 **외부서비스와 연계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보로 활용가능 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국민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내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준다.**

- **(활동중 에피소드)** 영양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디자이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팅은 다른 어떤 미팅보다도 특히, 에너지가 넘치고 의견수렴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마도 그들 각자는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은 더 뜨겁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 **(실행)** 제안된 정책아이디어 실행을 위해 '15년 12월까지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이용하여 영양표시 표준 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평가사업, 영양관리프로그램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영양표시 읽기 광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1년 경과한 시점부터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계획 예상 시점	사업내용	소요기간	예산(천원)
15년 8월중	「영양표시 표준 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평가」사업	4개월	70,000
15년 8월중	「영양표시 읽기」광고」	3개월	70,000
15년 8월중	「식품영양성분 DB 및 영양관리프로 그램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4개월	90,000
			계, 230,000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구분	일시	장소
1차	'15.04.28(화) 16:00-18:00	서울역 회의실(KTX VI)
2차	'15.04.30(목) 18:00-20:00	서울 토즈 회의실
3차	'15.05.09(토) 9:00-13:00	서울역 회의실(KTX III)
4차	'15.05.16(토) 9:00-13:00	용산역 회의실(itx 1)
5차	'15.05.30(토) 9:00-13:00	서울 토즈 회의실
6차	'15.06.06(토) 9:00-13:00	서울 토즈 회의실
7차	'15.06.13(토) 9:00-13:00	서울 토즈 회의실
8차	'15.06.20(토) 9:00-13:00	서울 동대문 DDP
9차	'15.06.27(토) 9:00-13:00	서울 동대문 DDP


○ 참석자 : 대학생·직장인 등 10명(임지선, 김태균, 김혜수, 최하은, 안예은, 송지영, 홍수정, 이청림, 지혜원, 양진영), 식약처(이혜영연구관)

□ 회의 내용

- **(1차 회의)** 국민디자인단 세부 일정 및 참여자별 역할분담 논의
 - 각 단계별(영양표시 관련 발견·정의·개발·전달) 예상 과업 등 설명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디자인 과정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전원에게 서비스디자인 과정에 대한 요약전달 - 각 단계마다의 결과물 및 툴에 대한 설명 · 참여자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동안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영양정보 표시 (패키지 등)에 대한 경험을 기록, 다음 회의에서 공유

- **(2차 회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영양표시(가공식품 등) 관련 내용 공유
 - 영양표시 관련 일반인 대상 심층 면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논의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소개, 역할 파악 · 주제 이해하기(참여자마다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이해 정도 공유) · 이해관계자 파악하기(현재 이해관계자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의 관계 파악)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 · 일상생활에서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경험 공유 ·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인터뷰 가이드라인 작성


○ (3차 회의) 영양표시 관련 심층면접 내용 공유 및 고객 여정맵 작성

-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공 서비스 흐름도(장보기, 외식) 등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여정지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만나는가? - 식품장보기(온/오프라인) 시 영양정보를 접하는/다루는 국민들의 경험은 무엇인가? - 외식 시 영양정보를 접하는/다루는 고객 경험은 무엇인가? -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매뉴얼을 중심으로 그 경험여정은 어떠한가? - 영양정보 관련 행사 또는 이벤트 참여 시 그 경험여정은 어떠한가? - 언론 및 지인으로 부터 듣는 영양정보는 무엇이며, 각 매체는 어떠한 경험을 이끄는가?

○ (4차 회의) 영양표시 관련 개선방향 등 논의

- 1회 제공량의 경우, 식품 형태, 포장 단위 등에 따라 상이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위로 통일할 필요(예: 종이컵) 등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형태, 포장 단위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위로 통일할 필요 · 기준 대상에 따라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경우 복용 대상에 따라 용법·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 - 식품 특성상 의약품처럼 구체적일 수 없으나, 적어도 기준이 되는 대상이 2개 이상 필요 · 식품 관련 행정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는 영양정보에 대한 필수항목 없음

○ (5차 회의) 각 터치포인트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구성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서비스의 High & low points 검색 · 신규 서비스 터치포인트 논의


○ **(6차 회의)** 전문가 인터뷰(이경미 대표, 성미옥 대표)

- 일상생활에서의 영양정보 활용 및 예시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인터뷰(이경미 대표, 성미옥 대표님) - 일상생활에서 영양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일상에서 영양정보 잘 다루도록 하기위한 예시는 무엇인가?


○ **(7차 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구체화 등 논의

- 터치포인트 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구성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서비스의 High & low points 문제 해결 · 각 터치포인트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구성

○ **(8차 회의)** 터치포인트 별 시나리오 수정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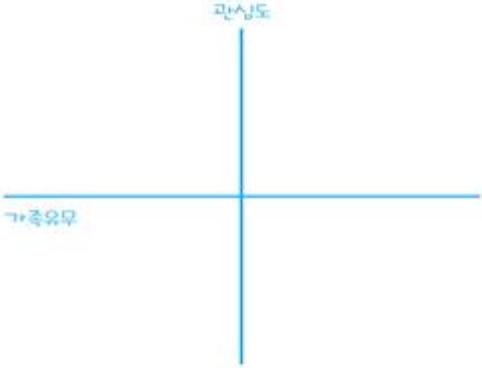


- 탐험진행에 관한 정리 토론 및 영상 메시지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의견들을 종합해보고 비판적 사고(5 WHYS) ·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구체화 · 터치포인트 별 시나리오 수정 및 정리 · 탐험진행에 관한 정리토론 및 영상메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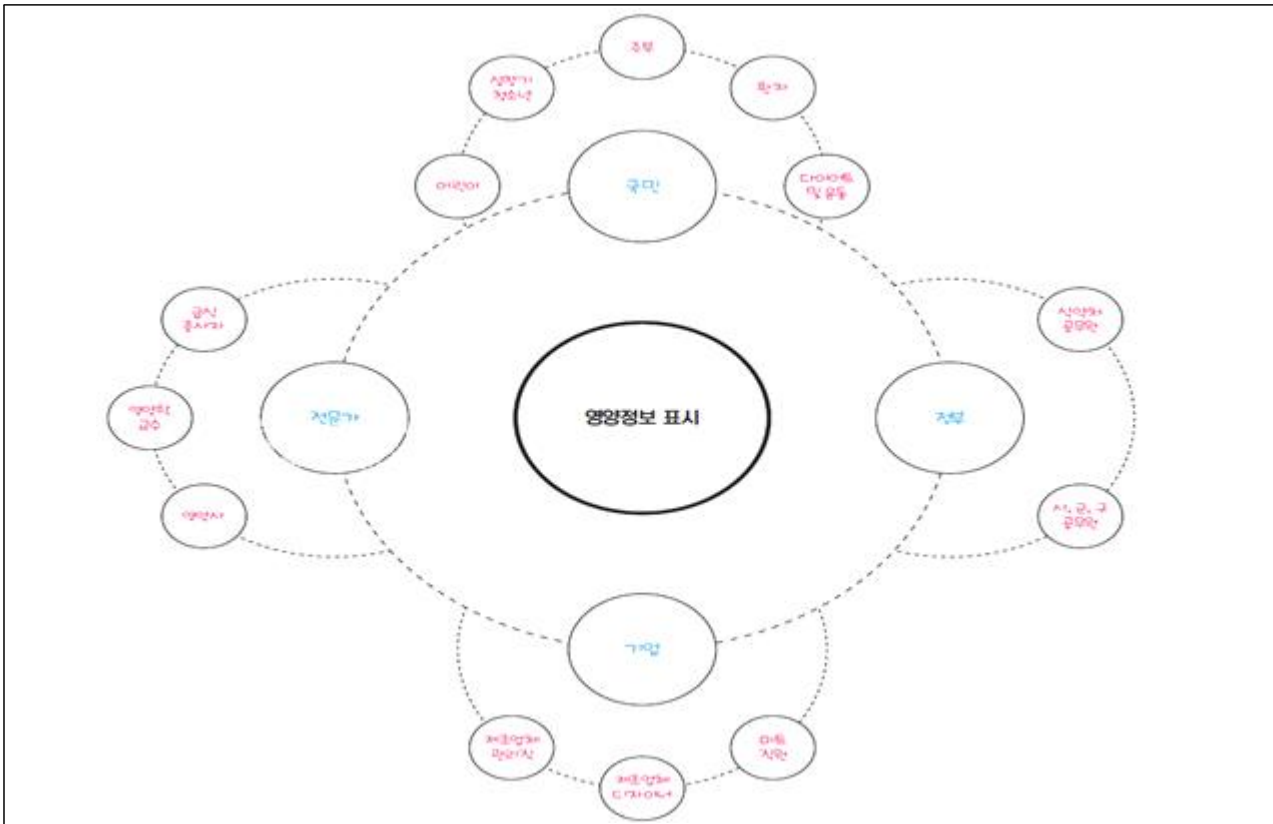
○ **(9차 회의)** 최종 점검(발표자료 정리)

회의사진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발표자료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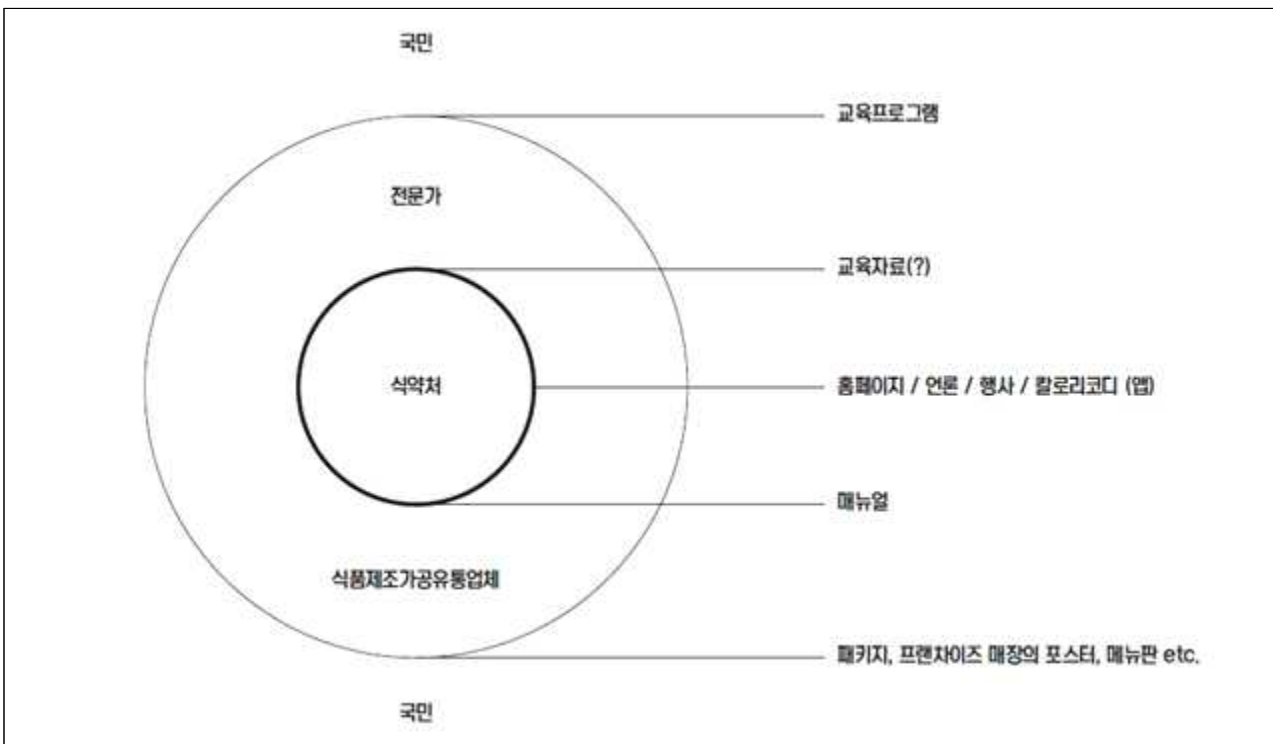
[붙임 1] 식품영양 표시·제공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h3>핵심 파트너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 직원 · 식품 제조업체 직원 · 프랜차이즈 매장 점원 · 제조용공급(제배자) 	<h3>핵심 자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보(강조 표시) · 건강에 대한 관심도 · 행사 기회(교육)
<h3>핵심 활동?</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성분 표시시 규정 (글씨크기) 기업의 자율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가이드라인화함 · 영양정보 표시 제도화 · 분석 (가능성) - 소비자단체, 영역 · 언론보도, 설문, 국민보건통계 · 기준을 통해 +함 · 산업체 교육 · 교육 홍보 - 교수님 혹은 영양사를 통해 · 공익 광고 및 이벤트 	<h3>가치 제안</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 균형적인 식생활 제품 간의 선택을 도모중 · 기업 - 더좋은 제품으로 홍보하는 수단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 국민 - 영양 산업에 기여 영양 산업에 인력도 · 무-저에 대한 기준 (좋고 나쁜 성분의 양에 따른 기준) = 중량대비 강조표시
<h3>고객 관계</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정보 제공유무에 따른 신뢰도에 영향 · 패키지 때문에 신뢰도가 달라짐 · 강조표시는 제품선택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줌 · 정보의 의미성에 따른 활용도에 영향 · 유의미한 정보라고 와닿지 않음 · 관심도가 낮음 · 현재 영양정보표시에 관한 행사는 호응도가 낮음 (딱딱하고 뻔한 교육 행사) 	<h3>고객 세분화</h3>  
<h3>채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 급식 (영양정보, kcal) · 보도자료 · 책자 (무료배포) · 직접교육 (학술대회, 교수님 초청강의 etc.) · 간접교육 (영양사협회, 지역교육청) -기업 (품무원 - 요리교육시 프로그래밍화) 	<h3>원가 구조</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제품 선택(영양정보 활용) ·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의료비 지출 절감 · 식약처 기준 권고 · 식품 제조·판매·유통 업체들의 영양정보 고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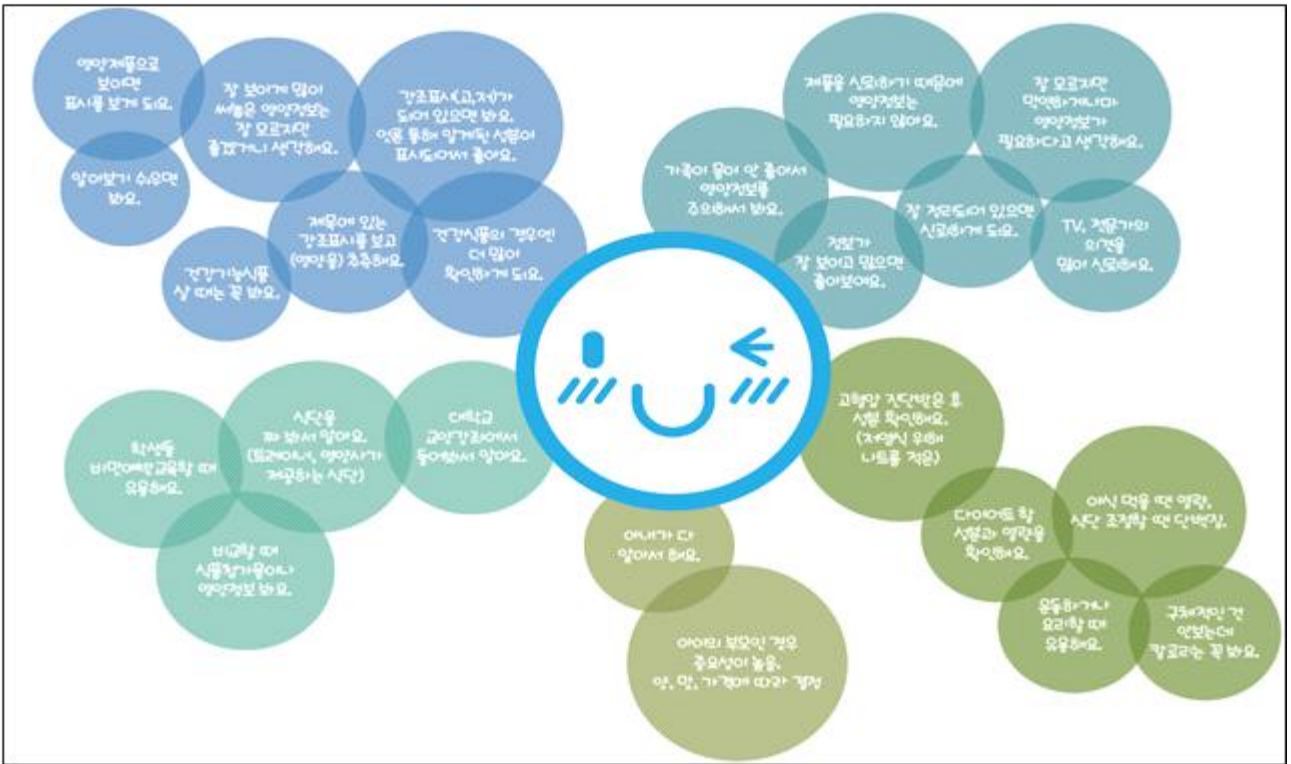
[붙임 2] 이해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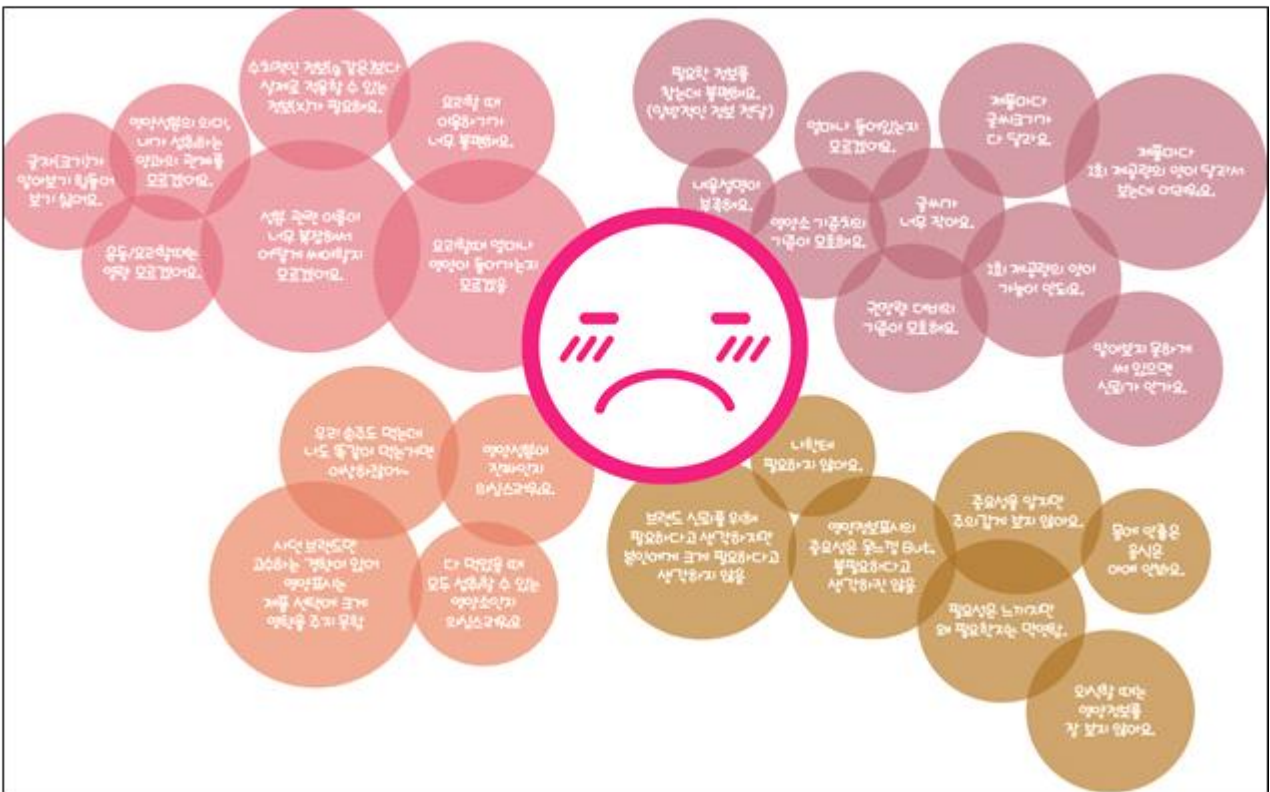
[붙임 3] 서비스 흐름도



[붙임 3] 경험 나누기(긍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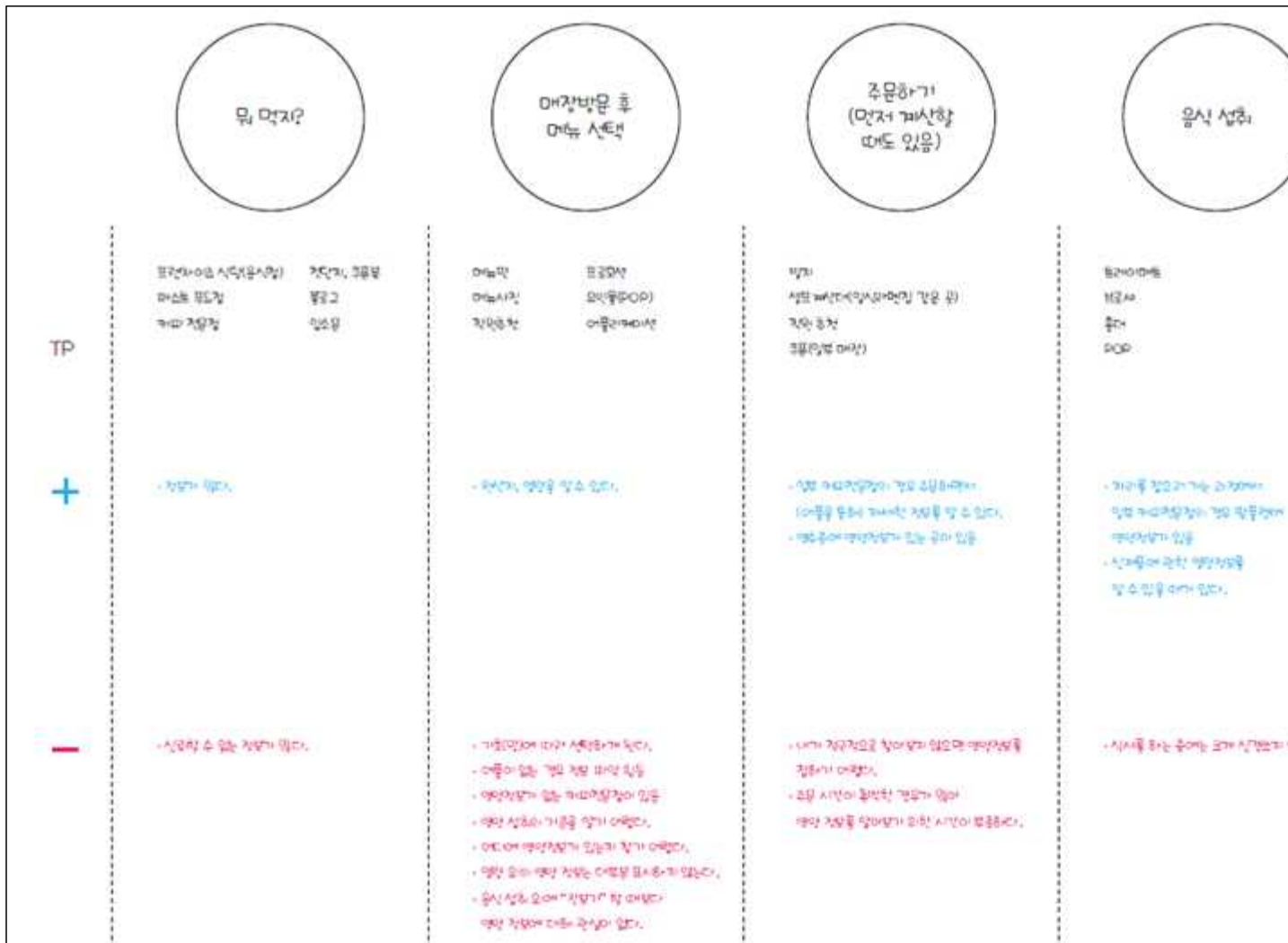
[붙임 3] 경험 나누기(부정적 측면)



[붙임 4]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공 서비스의 흐름 구체화 해보기(고객편-장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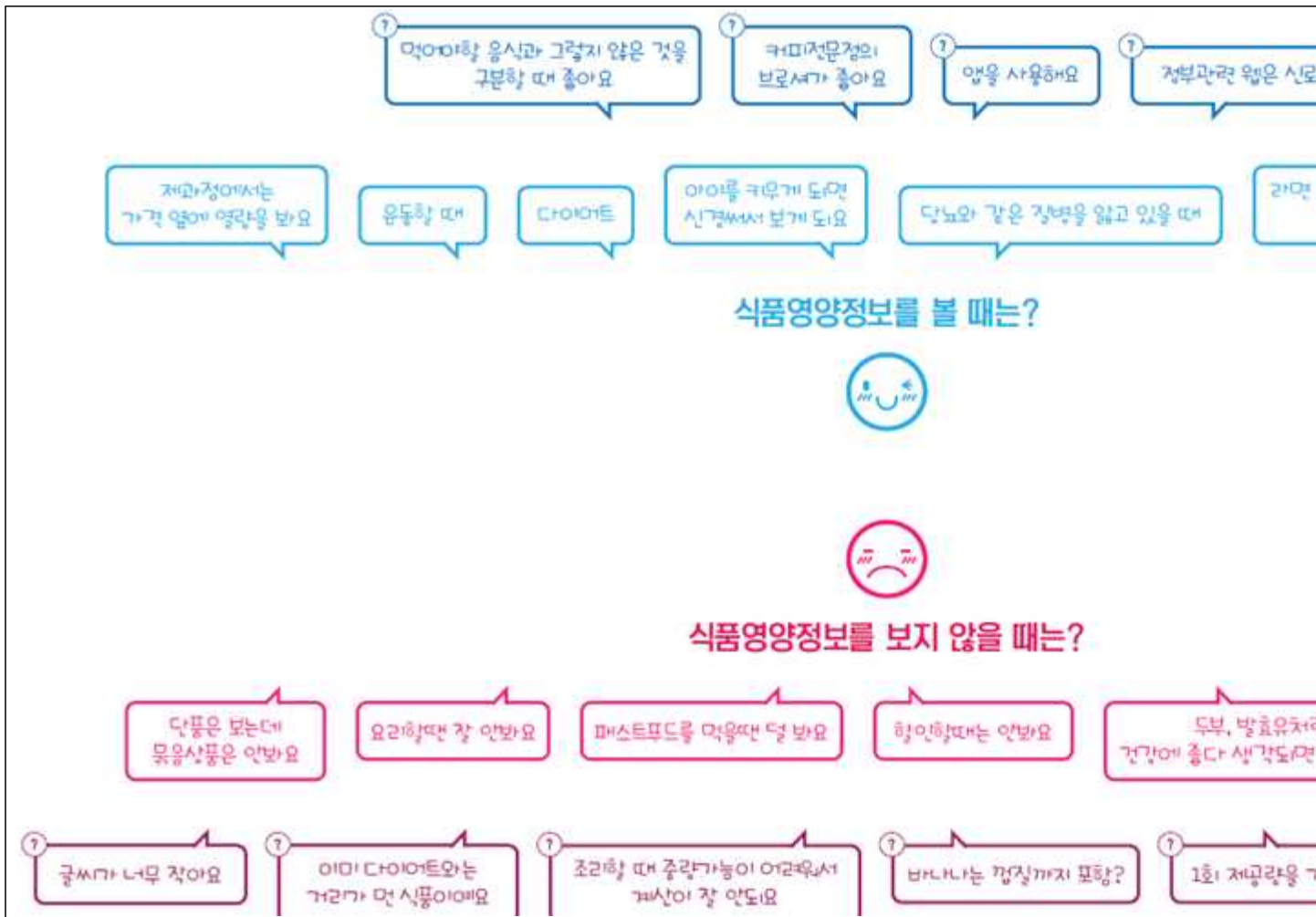
[붙임 5]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공 서비스의 흐름 구체화 해보기(고객편-외식)



[붙임 6]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공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기

<p>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p> <p>국민들의 균형잡힌 식생활 식품을 구매, 조리하거나 먹을때 비교기준 제시</p>	<p>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p> <p>대국민 조사, 기업이나 마트 등 식현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건 통계, 언론 보도 자료 목적에 따라 권고 가이드라인 설정</p>	<p>표시적용</p> <p>국내 100개 소비자가 불 여권이 기호</p>
<p>1회 제공량은?</p> <p>량과 영양소 기준치의 기준은 성인남성 기준</p>	<p>어떻게 표시될까?</p> <p>텍스트 표시</p> <p>손톱모양 표시</p>	<p>강조표시</p> <p>기준 시장매 25% 이상의</p>

[붙임 기]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공에 대한 ‘나’의 경험 알아보기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양 표시 및 정보 제공 필요성 증가
 -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영양표시제도가 가공식품(95~), 외식(10~)에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 등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 1회 제공량, 1일 영양소 기준치 등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총내용량, 1회 제공량, 열량 등이 이중으로 표기되어 읽기 어려움
 - * (가공식품) 교육부족 34% > 전문용어 사용 30% > 작은 글자 20% > 많은 정보 16%
 - * (외식) 글자가 작고 찾기 어려움 54% > 관심부족 29% > 이해하기 어려움 14%
 - 국회, 언론 등에서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개선 필요성 강조

- * (국회) : 영양표시 활용율 제고 필요(서면질의, 류지영 의원, '14.2)
 자율영양표시 현황 조사 결과(자료요구, 김현숙 의원 '14.9)
- * (언론) : 헛갈리는 영양정보, 누구보라는 영양표시인가(SBS, '15.7)
 자율영양표시제 시행 1년 '유명무실'(현대경제, '14.7)
 1회 제공량 애매하네..과자열량기준 무색(연합 등, '15.1)

- 영양표시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행사 등을 지속 보완, 시행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와 눈높이 소통으로 알기쉬운 영양표시 및 정보 서비스 마련

□ 추진 내용

- (가공식품) 영양표시기준 및 도안의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1회 제공량 대신 1포장당 표시 등 표시방법 개선(규정 개정)

- 쉬운 용어사용, 영양표시 도안 간소화 등 표준 디자인안 개발 (가칭, '튼튼박스'), 향후 교육·홍보 등에 일원화된 시각 모티브 제공
- (외식) 프랜차이즈제품 영양정보 서비스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안내판 등 영양정보 제공방식을 통일, 표준디자인안의 현장 적용 및 피드백 평가, 적용 가이드 및 지침서 개발·보급
- (매뉴얼) 디자이너 매뉴얼 개발로 포장품질 제고(국민 디자인단 추가)
 - 영양정보를 생성하는 시점에서 포장 디자이너들이 오류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편 매뉴얼 및 자가체크용 체크리스트 개발
- (홈페이지/이벤트/행사) 국민과 소통하는 정보 서비스(국민 디자인단 보완)
 - 영양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체험중심의 행사 실시
 - 정보 공유·활용 극대화 위한 SNS 연계기능 강화, 정보 제공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후 피드백 강화(국민 디자인단 보완)
- (모바일 앱) 영양관리프로그램의 활용성 극대화(국민 디자인단 보완)
 - 프랜차이즈 제품의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및 활용성** 제고
 - * 정보제공 품목수(누적) : ('14) 4,000개 → ('15) 8,000 → ('17) 약 20,000
 - ** 칼로리코디 앱과 PC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입력, 저장, 인쇄 등 편의성 제고
 - 제품의 영양성분 DB 및 개인 식사기록을 병원, 학교 등 외부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국민 디자인단 보완)

□ 향후 계획(일정)

- 「영양표시 표준 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평가」 사업 추진
 - 가공식품(포장)및 프랜차이즈 업체(안내판)의 표준디자인안 개발, 포장디자이너 매뉴얼 등 개발, 현장 적용 및 적용평가 등
 - * 사업 공고 및 계약 (8월) → 사업 추진(9월~11월) → 사업 마무리(12.15)
- 「식품영양성분 DB 및 영양관리프로그램 활용성 제고방안」 사업
 - 제품 DB 및 개인기록을 병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 * 사업 공고 및 계약(8월) → 사업 추진(9월~11월) → 사업 마무리(12.15)